

전남서 LPGA 성공 개최...4일간 6만명 ‘구름 인파’

호남권 최초 ‘BMW 챔피언십’ 성료
도, 교통·숙박·홍보 등 종합 지원
국제 스포츠이벤트 운영역량 입증
선수단·관람객 “완벽한 대회” 호평

호남권 최초로 열린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4일 간 총 6만여명의 구름 인파를 불러 모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전남도는 대회 전부터 교통, 숙박, 통역, 홍보 등 전 분야에 걸친 철저한 준비와 세밀한 현장 대응에 나서 선수단과 관람객 모두에게 ‘완벽한 대회’라는 호평을 받는 등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열린 4일 간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현장을 찾은 갤러리(관람객)는 16일 9천720명, 17일 9천49명, 18일 1만111명, 19일 3만1천719명 등 총 6만500명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LPGA 대회 준비를 위해 교통 분야의 경우 외부 주차장-경기장 간 셔틀버스 운행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주요 구간 교통 통제와 안내 인력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혼잡 없는 현장을 구현했다. 또한 선수단과 일반 관람객 동선을 사전 분리해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며 주차장 안내 표지와 유도요원 배치로 이동 편의성을 높였



호남권 최초의 LPGA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16-19일 4일간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전남도가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사진 왼쪽부터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18번홀 주변에 운집한 갤러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현장에서 대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모습. <전남도 제공>

다. 이러한 체계적 운영 덕분에 교통 혼선이나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원활히 진행됐다.

숙박과 식음 부문에서도 ‘남도의 품격’을 담아 세심하게 준비했다. 선수단 숙소는 경기 일정과 휴식 시간을 고려해 배정했으며 숙소 내 피트니스룸과 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함께 운영해 컨디션 관리를 도왔다.

선수단 식당에서는 해남 전복, 나주 배, 고흥 유

자 등 지역 농수산물물을 활용해 건강과 맛을 모두 잡았다. 외국 선수단과 미디어 관계자들은 “전남의 정성과 환대가 느껴졌다”고 찬사를 보냈다.

홍보 부문에서는 이번 대회를 전남을 세계에 알리는 무대로 삼았다. 대회장 전남홍보관에서는 남도국제미식박람회,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대형 국제행사를 소개하고 전남 농특산물 시식과 관광 홍보 전시를 함께했다.

JTBC 골프채널 등 글로벌 중계를 통해 해남의 청정 자연과 남도의 매력이 170여개 국가에 전파됐다. 또한 대회 기간 해남지역 숙박·외식·관광업계 매출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하며 지역 경제에도 뚜렷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번 대회를 지켜본 선수단과 관계자들은 “교통, 숙박, 안전, 언어 지원 등 모든 면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했다”며 “전남은 향후 LPGA와 같

은 세계적 스포츠대회를 다시 유치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대회를 위해 교통, 숙박, 홍보 등 전 분야 지원 체계를 사전 점검하고 완벽히 준비한 결과, 세계적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을 글로벌 스포츠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한강 작가 노벨상 1주년 영상공모전

내달 21일까지 접수...상금 300만원

광주·부산서 선정작 3편 동시 상영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과 부산 영화의전당이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 협력 영상 공모전 ‘불꽃이 타는 곳’을 공동 개최한다.

공모전은 문화와 창의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첫 시도로 미디어아트와 영화 등 장르를 넘나드는 융합 창작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공모전 명칭인 ‘불꽃이 타는 곳’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한강 작가가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업실을 ‘불꽃이 타는 곳’이라고 표현한 데서 착안했다.

주제는 예술가의 창작적 열정과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미디어아트·단편·실험영화·애니메이션 등 장르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단, 작품은 반드시 영상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11월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총상금은 300만원이다. 최종 선정된 3편의 영상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외벽 파사드와 유네스코 창의벨트 제5권역(광주송정역), 부산 영화의전당 아와극장에서 동시 상영된다.

선정된 작가들은 광주와 부산에서 열리는 상영회와 개막식에도 초청돼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12월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누리집 또는 부산 영화의전당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gmap@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화 문의는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전시팀(062-613-6143)으로 하면 된다.

김하경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센터장은 “이번 협력 공모전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교류와 동서문화 협력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며 “한강 작가의 예술혼을 이어받은 참신한 영상 작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전남 상생축제 ‘빛가람 페스티벌’ 성료

3만여명 참여...문화·예술·체험 즐겨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열린 ‘제11회 빛가람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광주시에와 전남도,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공동 주최한 ‘제11회 빛가람 페스티벌’은 18-19일 이틀 간 3만여명의 시민과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관광객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의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케이팝(K-POP) 댄스, 나주시 소년소녀합창단, 이전 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 빛가람 합창단 공연 등이 이어졌다.

저녁에는 트로트 가수 ‘진이랑’과 B-boy EDM 파티팀 ‘잭팟크루’의 무대가 펼쳐져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 오케스트라, 나주시립합창단, 전남도립국악단 공연과 함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라인댄스·장구 난타·줄넘기 무대가 관람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버블·별문 퍼포먼스, 어쿠스틱 밴드, 팝페라 공연, 초대가수 김장훈의 열정적인 무대와 불꽃쇼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부대행사도 다채로웠다. 플리마켓과 사회적경제기업 마켓, 푸드존은 긴 줄이 이어졌고 어린이 에어바운스 놀이터와 반려동물 놀이터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붐볐다.

체험 부스, 흑백사진관, 이전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아 미술 작품 전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변은진 기자

도립미술관 하반기 소장작품 구입 공모

전남도립미술관은 19일 “한국 근·현대 미술과 전남미술사 연구 기반을 심화하고 미술관의 정체성을 반영한 우수 작품을 확보하기 위해 2025 하반기 소장작품 구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미술관의 장기적 비전인 ‘지역성과 세계성을 아우르는 수집·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 단계다. 전남의 미술사적 가치를 아카이빙하고 확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집 방향은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 ▲전남미술사의 흐름과 맥

락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 ▲전남의 역사·지리·자연·문화적 특징 등을 주제로 한 작품 ▲동시대 미술의 주요 경향을 이끄는 대표 작품 ▲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한 작가의 작품 등 5개다.

공모 일정은 22일까지 등기우편 접수를 받으며, 우편 소인 기준 22일까지 유효하고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알고당시다

개인형이동장치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법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법칙금 4만원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법칙금 2만원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법칙금 10만원

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RO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